

부활 제3주일

제 1독서 : 사도3,13-15,17-19

제 2독서 : 1:2,간2,1-5a

특 음 : 루가24,35-48

숲 정 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만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루가 24, 44b)

강 련

소 리

너희에게 평화가

양석현 신부 / 황동 천주교회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실 때 언제나 한결같이 맨 처음 하신 인사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죄인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간혀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 당신의 일생을 바치셨고, 수난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평화를 얻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내다 보시며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알았던들...”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는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사중에 많은 부분에서 평화를 갈구합니다. 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체의 주된 부분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바친 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가셨음을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평화를 이웃에게 나누는 행위를 합니다.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체 직전에 다음과 같이 노래 부릅니다.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나누어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화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아멘.

다시 듣는 말씀

불교계의 조계종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찌보면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설왕설래할 일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달리하면 그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크다.

성철 큰스님이 입적한 지 반년이 채 안 되었다. 그 행적이 너무나 돋보이고 훌륭해서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그분의 그림자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며 그분의 말씀 한 대목을 떠올려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큰스님은 육설도 곧잘 했다. 가야산 호랑이라는 큰스님 별명이 말해주듯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불호령을 내렸다. ‘이 쌍놈의 자식들아’ ‘신자 밥만 축내는 빌어먹을 놈들’ 같은 육설 속에도 돌이켜보면 깨우침을 위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고 큰스님을 모셨던 원순 스님은 말한다. (시사저널 제 212 호 13페이지/‘쪼다같은 시주도둑들아’에서 옮김)

시주 도둑들이라는 한 마디는 그야말로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결국 이 말은 할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축내는 봉급쟁이, 그저 적당히 일하며 회사돈을 축내는 월급쟁이도 다 이 부류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조계종의 새바람과 더불어 정치자금으로 탈바꿈했다는 의혹을 받는 80억 시주의 행방이 바르게 밝혀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甲]

숲정이 산책



동정부부 순교자 유 요한과 이 루갈다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연구소장

1795년 4월5일(양력)은 부활축일,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후 처음 서울에서 주문모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 성제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5월, 유향검의 초청으로 전주를 방문한 주 신부는 초남리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얼마나 몽매에도 그러던 미사성제인가! 신도들은 주 신부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처럼 환영하고 공경했다.

미사성제는 한국 신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하늘님은 세상 만물의 이치로 이해한 하늘님도, 교리로 깨달은 지식의 하늘님도 아니었다. 성체를 받아 먹은 신도들은 하늘님이 내 몸 안에 들어 오시어 '내'가 되시고 '나'를 하늘님처럼 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실감했다. 신도들은 하늘님과 나는 도려낼 수 없이 완전하게 합일(合一) 되었다는 사실은 자각하자 몸을 떨었다. 우리가 하늘님이 되었다니!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두고 박해 때 신도들은 축가를 만들어 "이런 은혜 입은 교우 천주 계신 성전이라, 신은(神恩) 성총(聖寵) 많이 받아 아름다운 궁전일세"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렀다. 몸을 정신의 집이라고 배운 교우들은 자기 몸을 살아 계신 하늘님의 현주소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영성체자에게는 합당한 본분이 요구되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소망·사랑으로 공경하고 영혼과 육신 일체를 예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루갈다와 유 요한은 성체를 받아 모신 후 하늘님의 몸이 된 은혜를 곱씹으며, 하늘님의 몸담게 온 마음과 힘을 쏟아 분심없이 하늘님의 뜻대로 살아 갈 방법을 찾다가 동정생활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데에 뜻이 멈췄다. 결심이 여기에 이르자 이 루갈다는 주 신부에게 자신의 뜻을 말했다. 주 신부에게는 새삼스런 말이 아니었다. 이미 유향검의 큰 아들인 요한으로부터 동정생활의 결심을 들은 터였다. 주 신부는 하늘님의 섭리라 여기고는 두 사람이 동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효도와 충성을 지상 의무로 강조하던 당시 사회에서 결혼은 의무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정생활을 유지하려면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신부는 이들의 사람됨과 믿음에 깊은 신뢰를 갖었다. 그래서 불집을 내듯 위험한 일이지만 두 사람이 결혼은 하되 남매처럼 살며 동정을 지키겠는가 양편에 의향을 물었다.

저간의 사정은 접어두자. 주 신부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착한 목자였다. 그의 주선으로 1797년 두 사람은 결혼을 마치고 당시의 혼인 풍속대로 유 요한은 루갈다의 집으로 가서 1년을 지내고는 초남리로 돌아 왔다. 그리고 1798년 9월 두 사람은 부모 앞에서 부부동정 서약을 맺었다. 양가의 부모는 참으로 홀륭하구나! 뜨거운 피가 끓는 청춘남녀에게 어찌 인간의 본능이 없었으랴.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날뻔한 유혹에 헐 수 없이 시달릴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 앞서서 피흘리는 고통을 지쳤던 예수의 사랑을 끌어 안고 본능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들려는 의식을 꼬집으며 '나는 예수의 몸이다'라고 주문처럼 외었다. 그리하여 시련이 깊을수록 예수에 대한 정이 더 진해졌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시는 예수라는 믿음이 살 속을 후비었다. 고통없는 사랑은 아편이 아니던가.

두 사람은 고행과 금욕을 구원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긴 고행주의자이거나 금욕주의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예수를 무소유(無所有)의 사람으로 인식했다. 사실 예수는 무소유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했다. 현세에 대한 집착심, 자기에 대한 애착심, 물질적인 소유욕과 육체적 본능의 욕망에 고삐를 매지 말고 초연하게 살라고 온 생애에 걸쳐 호소했다. 부부동정생활은 곧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므로 마음의 흠어짐 없이 맑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신부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 미용실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주) 선우관광

해외여행, 여권·비자·유학,
신혼여행, 성지순례, 항공권
이종길(요한)
이희준(요한비안네)
전주 상업은행 옆
☎ (0652) 87-9797
(0653) 855-4302

특별 우대 동서가구 서부 대리점

이건무(요한)
효자동 전북은행 앞
☎ 224-8280~1
222-8384

잡간

치명자산, 제 1 단계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우리 교구는 지난 87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계기로 유적지나 성지인 나바위, 여산, 전동성당, 천호, 초남리, 서천교, 초록바위 등 각종 성역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치명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지를 성역화했다. 돌이켜보면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교님을 중심으로 신부님, 수녀님, 우리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본다.

이제 우리는 치명자산 제1단계 성역화사업을 마치고 오는 5월 9일 '치명자산 성당 축성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구는 지난 87년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교구민의 뜻을 모아 '치명자산'을 성역화하기로 결정, 88년 3월 5일에 기공식을 가졌었고 드디어 오는 5월 9일, 기공식을 가진 지 만 6년 2개월만에 '치명자산 성당 축성식'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이곳 치명자산을 성역화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89년 성당 골조 공사 : 119,000,000원
2. 92년도 석축 계단 토목공사 : 212,200,000원
3. 93년도 건물 마감 및 부대시설 : 843,394,000원 계 : 1,174,594,000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은 대략 11억7천5백만원 정도이다. 앞으로 교구에서는 이곳 치명자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조경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고, 유항검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유품을 중심으로 작지만 정성을 다해 박물관도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치명자산 제1단계 성역화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우리 교구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자랑인 유항검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삶과 영성을 본받고, 하루빨리 이분들이 성인들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며, 이곳 치명자산 성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교구 소식

※ 성소주일 행사 : 4월24일(일) 오전9시40분 윤호관,

중·고·대학생·일반(성소에 관심있는 자)을 초대합니다

1. 대야 성당 축성식 : 4월23일(토) 오전11시 주례-이병호 주교
 2. 춘계 사제 연수회, 총회 : 4월19~21일 나바위 피정의 집
 3. 천호 피정 안내 : 4월23~24일 주례-현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시련 강사-김정수 신부, 문의 73-6600
 4. 혼인강좌 : 4월24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0,000원
 5. 하나회 미사 및 월례모임 : 4월24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별관
 6. 종교음악 연구회 교육 : 4월18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4층
 7.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4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8. 가톨릭 간호사회 총회 : 4월23일(토) 오후1시30분 대학병원 지하 성당
 9.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4월18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첫 그리스도인
- ※ 축! 영명 : 21일(성 안셀모) 김윤섭 신부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2)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는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 수거하여 버리는 습관을 기릅니다.

우리온돌 전복총판

- 연료 50% 절약 24시간 뜨끈뜨끈
- 각종 보일러 시공 상담
-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 주임순(바울라)
- ☎ 78-1363, 1431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당뇨식·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종환(유스띠노)
이미연(마리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칼리수
작은 예수회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요십이 (1077) 김병오



초대합니다.

대야성당 뱃막 잔치

장소 : 대야성당 옆 궁터
기간 : 16일(월매) - 25일(월매)까지
주최장 : 대야성당 마당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야 천주교회

장학생 선발공고

1. 자격 : 복자신협조합원 및 조합원자녀, 전주 시내 중·고생·천주교신자 및 예비신자로 생활환경이 곤란한 자 2. 제출서류 : 당 조합장학금 수혜원서,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 1통, 소명합판 사진 2매. 3. 제출기한 : 4월25일(월) 오후 5시까지. 4. 문의 : ☎88-4404, 88-4330-2 전주복자신협합동조합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때 : 4월 24일 오후 2시.
· 곳 : 삼북진 본원 (0527) 52-4241
· 준비물 : 성서, 필기도구

꽃동네 성소의 날 행사

- 때 : 4.24(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꽃동네 음성 본원)
- 문의 : (0446) 78-9810~1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부활 제3주일.
1. 여수녀님 피정: 19~28일, 많은 기도바람.
 2. 사순절 사랑의 성금: 2,610,000원, 성미: 10가마, 신학생 후원금: 2,039,670원.
지출-본당 불우이웃: 2,540,000원, 불우시설: 500,000원
 3. 경노잔치: 5월8일 장엄미사 후.
 4. 예수 승천 옷놀이 대회: 5월15일 장엄미사 후.
 5. 모임: ①여성연합회(19일 어머니미사 후)
②푸리아(24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③대견회(24일 장엄미사 후)
 6. 다음주일(24일)은 성소주일 2차 헌금 있음.
 7. 반미사를 원하시는 반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8. 금주 청소년: 중노9, 10반, 차주 청소년: 중노11, 12반.
- 지난주 봉헌금: 962,960원 □ 교무금: 998,000원
□ 2차 헌금: 427,3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부활 제3주일! (다음주일은 성소주일 2차 헌금 있음)
1. 성모회: 4월17일(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장회: 4월24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집중 교리: 4월19일(화)~4월22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4. 영세식: 4월23일(토) 저녁미사중(영세자와 대부분은 1시간 전에 집결할 것)
 5.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 유철갑 300만원, 최기호 150만원, 백영선, 김의순, 전성복 3명 각 100만원, 김영일, 김영순, 김정희, 옥사순, 송병운, 박병훈, 강공수 7명 각 50만원, 이금순, 박용욱, 이양환 3명 각 30만원, 안계구, 황광주, 임부성, 배순남, 이성덕, 정선자 6명 각 20만원, 김춘선, 박진용, 유아문, 이일순, 양승찬, 양은수 6명 각 10만원, 이정숙 8만원, 이귀일 7만원, 김현순, 임정남, 임철순, 이연자, 한순남, 허영, 최지영, 임철순 8명 각 5만원, 유희주 3만원, 최호덕, 손홍열 2명 각 2만원, 익명 50만원, 중·고학생 부활제란 판매 십구만삼천 팔백원, 26만, 14만 각 10만원. ※4월10일 현재 154세대 지난주 신입액 14,723,800원
※성전 보수 헌금 세대별로 다같이 참여합니다.
축! 결혼: 신랑-김완길, 신부-최경희(안나), 4월17일 오후 1시(서학동 성당)
금주 전례: 이동재, 독서-전병규, 서순희
차주 전례: 유용산, 독서-이정환, 박민숙
- 지난주 봉헌금: 1,031,900원 □ 교무금: 87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정태현(갈리스도)신부님, 그동안 성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보좌신부님방(사제관) 비품 기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하오니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21일(목) 오전 10시.
 4. 복자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공고
기한-94년 4월25일 오후 5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88-4404, 88-4330~2)
※축! 결혼: 24일 12시 신랑-김태영(미카엘) 군
신부-성은영 양
- 지난주 봉헌금: 624,450원 □ 교무금: 1,323,5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부활 제3주일입니다.
1. 금주: ①교구 성소후원회 각 본당 임원단 모임(전 10:30 센터)
②바나의 성모Cu(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2. 성화회: 18일(월) 오후 6시.
 3. 춘계 사제 연수회, 총회: 19일~21일, 나머지 피정의 집.
 4. 성모회: 19일(화) 오전 11시.
 5. 베에따회: 20일(수) 오전 11시.
 6. 성지회: 22일(금) 오후 8시.
 7. 차주: ①성소주일(2차 헌금) ②혼인강좌(전 9:30 센터)
③예비자 입교식(공식미사 후)
④성마리아Co(후 2시)
 8. 젊은이 피정: 본당에서, 30일(토) 오후 9시~5월1일 새벽미사.
 9. 사순절 사제양성 후원 돼지저금통 봉헌바람.
 10. 성물 봉사(축성)은 미사중에.
 11. 감사합니다: ①연산홍(30년생) 6그루-정순복(아네스)
②자산홍 100그루-김홍석(다니엘)
③넝쿨장미 50그루-진일탁(요한)
④십일조 감사헌금 65만원-익명
- 지난주 봉헌금: 2,132,14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장우태

- ◎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십시다.
- ◎ 주일미사 참여와 기도생활은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1.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성모회-다음주일
 3. 구역 형제회: 22일(금) 신리-성당 석장, 수월, 마치, 의암 23일(토) 어두, 신흥, 백암, 내정, 공기, 서당
 4. 야외 율트레이: 21일(목) 장소-충무, 시간-오전 7시.
 5. 예비자 교리: 매주일 오전 8시30분, 수녀원.
 6. 성소주일: 다음주일-교구 2차 헌금.
 7. 축! 혼인: 신랑-양춘욱(요한) 신부-김혜선(세실리아) 24일(다음주일) 오전 12시, 상판 성당.
 8. 금주 청소년: 평화의 모후Pr, 차주-바다의 별Pr
 9. 재대꽃 불현: 서정길-3만원.
 10. 유아영세: 다음주일 오전 9시30분.
 11.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주영례
봉헌-이명수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정광철 ②임태남
봉헌-유춘근 씨 부부
- 부활 대축일: 1,046,300원
□ 지난주 봉헌금: 349,250원 □ 교무금: 451,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1. 사제 연수회: 19일~21일, 19일 아침 5시30분 미사, 20일 어머니 미사-박혜경, 아버지 미사-최병남, 교도소-오말다 수녀.
2. 성소주일 행사: 24일 9시 윤호관, 대상-중·고생, 대학생, 일반인(성소에 관심있는 자) 준비물-미사·필기도구. 중식-본당에서 제공.
3. 가정방문: 22일 강남1반 전 9시30분, 비교적 교우 인도.
4. 봉단장 대청소의 날: 23일 후 3시 젊은 형제들 협조바랍니다.
5. L.M 연쇄미사: 차례 담당표대로 Pr 전원 참여.
6.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8일 전 10시30분 센터 3층.
7. 페유(식용)모으기: 무공해 비누 제작을 위해 모두 함께 참여하십시오.
8. 성미 돼지 저금통 중합: 오늘 미사 후 사목위원들의 수고바람.
9. 회의: 임마누엘-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율트레이-다음주 공식미사 후
10. 구역미사 및 가정방문 감사예물: 6,496,000원
모든 교우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전축헌금으로 봉헌됩니다.
11. 탈삼미사: 23일 전 11시
김윤기 부친 연영(김용복 배드로), 평촌